

## “4대 과학기술원이 초혁신경제·지역혁신 이끈다”

- 구윤철 부총리, KAIST·GIST·D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 개최
  - ① ‘26년 대형 집단·융합 연구를 위한 4대 과기원 연계 ISD\* 신규사업 추진
  - ② AI+과학기술 국가대표 포닥 양성 확대, ③ 조기 박사학위 과정(11년→6년) 운영
- \* 기관전략개발단(Institute Strategic Development) : 국가 전략기술 등을 산·학·연과 함께 제품·서비스(End Product)로 구현하는 출연연/4대 과기원 하향식(Top-down) 기본사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되었다.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대 과기원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 지역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 AI 기반 전환 및 고도화가 지역전략 산업 맞춤형으로 진행될 필요성, ▶ AI 기반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 AI 핵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적극적 정부 지원을 통해 ▶ 대형 집단·융합 연구를 위한 4대 과기원 연계 기관전략개발단(ISD) 사업 신규 추진, ▶ AI+ 과학기술 국가대표 포닥(박사후연구원) 확대 및 ▶ 조기 박사 학위\*과정(11→6년)을 통한 “한국형 오픈하이머” 양성 등 4대 과기원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 구축 의지를 강조하였다.

\* 과기원영재학교 간 연계로 4대 과기원 입학 후 6년(학부 2년 + 석박통합 4년) 내 박사학위 취득 가능

4대 과기원 총장들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과기원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퍼지컬 AI·에너지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초혁신경제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혁신 연구 및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 성장한 4대 과기원이 지역기업, 지역거점대학, 지자체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과기정통부도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대한민국이 AI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기원이 지역-국가-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디지털전환팀	책임자	팀 장	곽미경 (044-215-8890)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kur t801@korea.kr)
담당 부서	예산실 연구개발예산과	책임자	과 장	오지훈 (044-215-7370)
		담당자	사무관	이동각 (ldk77@korea.kr)
담당 부서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4-202-4830)
		담당자	사무관	주재현 (jurozen@korea.kr)